

사회

전남사회복지사업 '희망 2020 프로젝트'

10년간 지구촌 이웃사랑 펼친다

광주일보 후원...29일 53명 인니 빵아래안 첫 출발

주민 복지센터 건립 지원·긴급구호 등 봉사활동

가난과 고통, 좌절에 빠져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 되는 지구촌, 희망! 아시아 2020 해의 봉사 장기 프로젝트' 사업이 의욕적으로 펼쳐진다.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윤동성)는 광주일보사 후원으로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장기해의 자원봉사프로젝트를 통해 지구촌 이웃사랑 운동 실천에 나선다. 첫 해인 올해는 53명의 자원봉사자가 오는 29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에 들어간다.

더욱이 이번 봉사활동에는 순천을 포함해 전

국의 대학생과 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재비도 스스로 부담했으며, 전남도 사회복지사업협회는 7천만 원을 사업에 투입해 자원봉사의 순수한 의미가 더욱 빛났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펼쳐지는 곳은 짙은 지진과 쓰나미 발생으로 재난상태인 인도네시아 반둥 외곽 '빵아래안' 지역. 빵아래안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1박12일간 봉사활동이 실시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크고 작은 지진이 8차례나 일어났지만 복구가

■인도네시아 빵아래안 위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처럼 아직도 재난에 신음하고 있는 빵아래안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복지센터 건립과 운영지원을 비롯해 ▲학용품 및 긴급구호 지원 등 구호활동 ▲태권도, 국악 등 문화교류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랑인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하고 반둥 사회복지대학과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를 위해 봉사대는 최근 발대식을 갖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장기 자원봉사 프로젝트는 초기에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개발모형을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또 한국의 전문 사회사업가를 파견해 사회사업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현지 사회사업가를 한국에 초청, 훈련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10년 후인 2020년에는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자립시키는 형태의 프로젝트이다.

윤동성 회장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조 공여국이 됐다"며 "인도네시아 '빵아래안' 지역민이 사회복지 차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오는 29일부터 인도네시아 반둥 외곽 빵아래안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인 '희망! 아시아 2020 해의 봉사' 단원들이 최근 발대식을 열고 지구촌 이웃사랑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설 성수식품 특별 단속

설(2월 14일)을 앞두고 전년도와 일선 시·군 직원들이 18일 나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설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교차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식품 보관상태와 위생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소년 성매수 유인 '그루밍' 첫 적발

10대 화면캡쳐 신고

올해부터 인터넷을 통해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하기만해도 처벌이 가능해진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신고 사례가 나왔다.

18일 경북 경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경산의 모 PC방을 찾은 신원미상의 한 남성은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A(14·중학교 3학년) 양에게 "마음에 드니 만나서 잡자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집에서 채팅을 하던 A양은 그 남성에게 미성년자 신분을 밝히고 제안을 거절했으나 재차 잡자리를 요구받자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117.go.kr)에 이를 신고했다.

이어 실시간 성매수 신고프로그램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이용해 그 남성이 성매수를 제의하는 장면의 사본을 퍼서 증거화면으로 제출했다.

경산경찰은 A양의 신고 내용과 채팅 시 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성매수 시도에 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내남동 교회 전소

목사 등 2명 화상

18일 새벽 0시10분께 광주시 동구 내남동 한 교회에서 불이 나 교회와 사택, 인근 빈집 등 140여㎡를 태워 1천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교회 옆 사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목사 김모(76)씨 등 2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사택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원침 (808) 김장동



광주시장 후보 지지자 조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A씨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최근 모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A씨를 소개한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일 모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유토론방'에 A씨의 약력·사진 등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선거위에 적발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환자 행사하며 절도·무전취식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흉터 입고 환자 행사를 하며 금품을 훔치거나 무전취식을 일삼아온 20대 남성이 불잡혀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18일 김모(28)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7일까지 광주시 동구 모 대학병원에 머물며 빈 침대나 휴게실 등을 전전, 잠을 청하고 박모(여·21)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김씨는 "고아로 자라 오갈 데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 단체 정말 합치나

야간 뺑소니 사망 사고

남부경찰, 70대男 구속

조직·인력·재무 통합 작업 첫 걸음

5월 관련단체가 마침내 공법단체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조직·인력·재무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을 위한 정관(定款)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18일 (사)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5월 관련단체는 최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유족회 사무실에서 '5·18 민주유공자 단체통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꾸린 뒤 첫 모

임을 하고 정관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각 단체 이사 2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는 5월 관련단체 통합에 필요한 의제를 결정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실무소위원회'는 5월 관련단체의 통합 목적과 조직, 업무집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정관에 담을 계획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정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일

정을 밝히긴 곤란하지만, 공법단체 설립은 오는 5월 말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 30주년 기념행사 맨 5월 관련단체 주최로 뜻깊은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 민주유공자단체통합추진위원회'는 2008년 12월 26일 서구 치평동 5·18 기념재단 대동 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나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로 5월 관련단체 간 분열양상을 보이면서 통합 논의가 한때 중단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남부경찰은 18일 고모(71·광주시 남구 지석동)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1일 밤 8시10분께 광주시 남구 임암동 모 주유소 인근 광주~목포 간 국도 1호선 도로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A(69)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A씨의 시신은 사고 직후 14시간여 동안 방치되다 다음날 오전 10시30분께 한 운전자에 의해 발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국립학점' (National Credi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about credit services.